

# 일본인 다문화가정의 생활과 지원\*

-충남의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이 덕 구\*\*

(e-mail: dklee0618@hj.ac.kr)

---

## 목 차

---

1. 들어가면서
  2. 일본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생활실태
  3. 일본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4. 나오면서
- 

## 1. 들어가면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이 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별 특성이나 문화요인 및 지역사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괄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또한 그 내용은 주로 이주여성의 적응교육에 집중되어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시키기 위한 취지의 교육(지원)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도되었다.

2009년 현재, 필자가 거주하는 홍성군을 비롯한 인근의 예산군과 청양군의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대략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정리된다. 서로 대동소이한 프로그램 중에서 3개 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가장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행복가꾸기사업’이며,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복가꾸기사업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

\* 이 논문은 이덕구(2009) 「일본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 구체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까지 진전시킨 것이다.

\*\* 해전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부교수.

적응교육에 집중되어 한국문화를 알리는 동화작업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주여성들의 출신국의 특성을 고려하였다고 보이는 프로그램은 전혀 찾아 볼 수 없어, 일괄적이고 일률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1)</sup>

표1) 3개 군의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주요내용(3개 군 다문화지원센터 제공)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홍성군	행복가꾸기 사업	다문화가족친정보내주기, 생활예절교육, 전통문화체험, 자녀적성 특기교육, 결혼이민자직업교육, 한국친정어머니결연사업, 문화유적답사, 초기입국자생활적응교육, 자녀방과 후 학습교실, 통역센터운영
	한국어 교육	초급(1,2)중급(1,2)고급과정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법률 및 인권교육, 결혼과 가족의 이해, 한국사회 적응교육, 다문화이해교육
	취, 창업교육	취창업지원 상담, 컴퓨터기초교육, 자격증반교육
	가족교육	시부모교육, 예비배우자교육, 자녀정체성교육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다문화음식 및 의상체험, 다문화인식개선교육, 언론매체홍보활동
	방문교육사업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원서비스
예산군	행복가꾸기 사업	한국어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우리문화체험, 가족갈등해소, 운전면허 취득교육, 요리강습, 통역센터운영, 취창업 상담, 영어회화반 운영, 만남의 날(취미활동지원)
	평생교육사업	문화 자원봉사단 육성, 전통예절교육
	통번역서비스	초기 결혼 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친정방문	결혼이민자가정의 친정방문지원
청양군	행복가꾸기 사업	찾아가는 1:1 맞춤형서비스, 즐거운 요리교실, 나를 찾아가는 길(원동기, 운전면허교육), 결혼이민자여성초기적응지원
	다문화지원 사업	김치담그기교육, 차례상차리기, 예절교육
	정서지원	비즈공예, 한지공예, 사물놀이, 친정멘토, 멘티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가족통합교육, 부부교육, 배우자(남편교육), 예비배우자(남편)교육다문화가정(자녀)반찬지원, 다문화청소년 수련활동
	취, 창업교육	영농교육(구기자, 고추재배 교육), 컴퓨터 활용 교육
	한국어교육	초급(1,2)중급(1,2)고급과정

1) 뿐만 아니라 여성부에서 실시하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 대책”(2006.4.26.)을 비롯하여, 법무부의 “다문화가족지원법”(2008.3.21 제정) 뿐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 “2007년 다문화가정자녀교육지원계획”(2007.6.5) 등이 출신국가별 특성이나 문화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추진 효과상의 한계 나타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 및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국 및 도 단위의 정부관련 기관에 의한 연구와 학계 등에서 다양하게 선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설동훈 외(2005)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에서는 945가구의 국제결혼가족(여성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여성결혼이민자 27명 대상의 심층면접을 통해 생활실태, 사회복지, 보건·의료 수요와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지원 방안으로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보장, 가족해체 예방과 다양한 문화, 가치관의 공존 지원,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 확충, 보건·의료 서비스 정비 등을 제시하였고, 2006년의 후속연구로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연구」에서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아동의 생활실태와 사회문화적 욕구 파악과 도·농간 차이 분석을 추가하여 아동의 사회적응 지원, 민관협력의 사회통합모델 구축, 결혼이민자가족지원법 제정 등을 주장하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탁과제로 진행되었던 연구로는 오성배(2008)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2008)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국제결혼가족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여러 측면의 생활실태 및 욕구,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이 모색되었는데, 김이선(외 2인, 2008)은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의 모니터링을 통한 성과분석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농업 인적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지원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러한 연구에서는 출신국가별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 학력, 나이, 가정 사정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대부분이 종교적 이유로 한국남성과 결혼이 이루어져 한국사회에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교회에 의존하여왔고, 선진국출신으로서 타 국가(후진국)의 이주여성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을 꺼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을 회피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떨어져있었다는 두드러진 특징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여성결혼이민자<sup>2)</sup>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모색하기위하여, 충남의 농촌(홍성, 예산, 청양)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와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일본인 이주여성들만이 가지는 특성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여 여기에 맞는

2) 한국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에 대한 정부의 공식명칭은 '여성결혼이민자'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온 여성결혼이민자를 '일본여성결혼이민자로, 또는 줄여서 이주여성이라고도 표현하였다.

지원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 생활상태와 의식세계를 들여다보고, 이를 통하여 일본여성결혼이민자만의 특성과 현실적 제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이러한 작업은 농촌지역의 일본인 다문화가정을 위한 효율적이고 실천적인 지원정책을 이끌어내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나아가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위한 다문화교육의 방향성도 제시될 것이다.

2009년 8월 현재의 조사대상지 3개 군의 일본여성결혼이민자는 총 41명으로 홍성군에 22명, 청양군에 13명, 예산군에 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충남도내의 일본여성결혼이민자(343명)<sup>3)</sup>의 약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의 일본여성결혼이민자(6,800명)<sup>4)</sup>의 약 0.006%를 차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상지 이주여성 41명 전원을 목표로 인터뷰를 시도하였으나 장기여행, 다망 등의 이유로 8명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못하여, 33명에 대한 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면접이 이루어지지 못한 8명에 대하여도 단순한 신상정보와 대략적인 생활상태는 동료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통계자료에는 전원에 대한 통계치를 나타낼 수 있었다(표2참조).

면접 시에는 약 20여문항의 설문자료를 기본으로 준비하였고, 이주여성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개별면접과 식당등지에서의 집단면접방식을 병행하여 보충적인 심층인터뷰가 이루어졌다. 이때의 언어는 일본어를 사용하였다. 이 밖에 3개 군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 통일교회 목사등과의 인터뷰도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9년 3월부터 1년간으로 7,8월에 집중적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 2. 일본여성결혼이민자의 현황과 생활상태

2009년 8월 현재 홍성, 예산, 청양군에 거주중인 일본여성결혼이민자는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41명으로, 대부분 통일교를 통한 국제결혼이었으며, 약 68%에 해당하는 28명이 1990년대에 입국하여 10년 이상의 장기체류자가

3) 2009년 현재 충남도내에 거주하는 일본여성결혼이민자는 총 343명으로 베트남(33.3%), 중국·중국동포(32.4%), 필리핀(14.4%)에 이어 충남도내의 전체 결혼이민여성 3,718명의 9.2%를 차지한다. 전년대비 1.4% 감소하였다고는 하지만 2008년에는 2007년에 비해 26.5%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기 때문에 일시적 현상으로 감소세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참조)

4) 김계정(2011: 350)참조.

많았고, 연령분포를 보면 현재 거의 모든 이주여성들이 3,40대의 연령대에 속해있다. 41명 중 약 66%에 해당하는 27명이 본국에서 고졸이상의 학교교육을 받은 고학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2) 3개(홍성, 예산, 청양)군 일본여성결혼이민자 현황(단위: 명)

구 분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계	비고	
이주여성 본인	이주여성 수	22	6	13	41		
	입국 연도	1981~1990	1		1	2	
		1991~2000	14	6	8	28	
		2001이후	7		4	11	
	연령	30대	7		7	14	
		40대	14	6	4	24	
		50대	1		2	3	
	학력	고졸미만					고졸이상(2년제 단기대학, 전문학교 포함)
		고졸	8	3	4	15	
		고졸이상	14	3	9	26	
	국적	일본	22	6	11	39	귀화
한국				2	2		

그리고 41명 중 한국으로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단 2명뿐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인 이주여성들이 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지 않는 이유에는 “일본에 있는 부모가 살아있는 동안은 귀화할 수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이 밖에 “귀화하지 않는 편이 자녀를 일본으로 유학 보낸다거나, 본국의 복지혜택을 받는데 유리하다” “결혼 전에 직장에서 연금을 불입했는데 귀화하면 노후에 본국(일본)으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이름이 예를 들어 야마모토타카코(山本孝子)가 산본효자와 같이 한국식으로 바뀌는 것이 싫다” “귀화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 또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자 늘 자신이 어떻게 되면 자식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귀화한 사람은 “언젠가 해야 하는 것이기에” “투표를 하고 싶어서” 등으로 귀화이유를 말하였다.

한편 일본인 여성들의 배우자인 남편들에 대한 정보는 남편들과의 직접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못해 부인들이 제공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하였으며, 본인들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잘 말해 주는 편이었으나 남편 및 가족들에 대한 정보제공(특히 부정적 측면의 정보)에는 대체로 인색하여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남편들의 연령대는 일본인 이주여성과 비슷한 40대에 집중된 분포를 보여주

지만 50대의 남편도 11명이나 있고, 평균적으로는 남편의 나이가 3~4살 위인 경우가 많았다. 남편의 학력은 고졸이 대부분이었으며 평균적으로 부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년평균수입 2,000만 원 이하의 저 소득자가 대부분이었다.<sup>5)</sup>

표3) 3개(홍성, 예산, 청양)군 일본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 현황(단위: 명)

구 분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계	비고
연령	30대	5		1	6	사망 1명 (예산군)
	40대	11	4	8	23	
	50대	6	1	4	11	
학력	고졸미만	2	2		4	기타(교회목사, 일용직노무자)
	고졸	18	3	12	33	
	고졸이상	2		1	3	
직업	농축산업	10	2	6	18	
	자영업(상업)	3		2	5	
	회사(공무원)	3	1	2	6	
	무직	2	1	1	4	
	기타	4	1	2	7	
연평 균 수입	1,000만 미만	2	2	1	5	
	1,000~2,000	15	2	3	20	
	2,000~3000	3	1	6	10	
	3000만 이상	2		3	5	

조사대상인 41명의 일본인 이주여성 중에는 단 한건의 이혼사례도 없었으며, 이들 41세대의 총 자녀수는 91명이었고, 2인 자녀를 둔 세대가 41%(17세대, 자녀수 34명)로 가장 많고, 3인 자녀가 24%(10세대 자녀수 30명), 1인 자녀가 12%(5세대, 자녀수 5명)의 순으로 나타나 일본여성결혼이민자의 가정은 비교적 많은 자녀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재학년에 해당하는 만 7세에서 12세에의 자녀가 48명 약 52.7%로 가장 많고, 만0~6세의 미취학 자녀가 27명 29.7%의 순이지만, 중고생에 이르는 만 13세~18세의 자녀도 16명이나 있어 전체의 18%에 해당하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기타 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보다 체재기간이 긴 여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5) 수입의 산출방식으로는 회사원이나 공무원의 경우는 연봉을 기준으로 하였고, 자영업의 경우는 연 매출 중 순이익부분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러나 농축산업의 경우는 비료와 농약, 사료 등의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였고, 부부가 함께 농사일을 하는 경우 전액을 남편의 수입으로 보았다. 1,000만 미만의 통계수치에는 수입이(별이) 전혀 없이 부인으로부터 용돈을 타 쓴다고 하는 경우의 배우자도 있었다.

표4) 일본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현황 (단위: 세대)

구 분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	계
자녀의 수	0명	2	1	4(0명)
	1명	3	2	5(5명)
	2명	13	2	17(34명)
	3명	2	1	10(30명)
	4명	1		3(12명)
	5명	1		2(10명)
	계	22(44명)	6(9명)	13(38명)

표5) 일본여성결혼이민자가정 자녀의 연령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자녀 연령			
	취학 전 (만0~6세)	초등학교 (만7~12세)	중학교 (만13~15세)	고등학교 (만16~18세)
홍성군	13	23	7	1
예산군	3	4	2	
청양군	11	21	4	2
계	27	48	13	3
비율(%)	29.7	52.7	14.3	3.3

홍성군에 거주하는 한 이주여성은 “결혼하여 살면서 부부의 사랑을 알고, 아이를 낳아 키우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고,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인격이 될 때 죽어서 좋은 데로 갈 수 있다고 교회에서는 말하니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중요하지요. 교회에서는 3명 이상 낳으라고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며 하늘나라의 시민을 키우는 성스러운 일입니다”라며 결혼과 자녀에 대한 의미를 교리와 연관시켜 설명했다. 또 “한국에도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일본에는 ‘아이는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는 말이 있어요. 아이가 다섯이라고 하면 모두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키울 것이냐며 걱정들 하지만 특별히 걱정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생기지 않아서 그렇지 생기기만 하면 지금도 낳을 거예요” 라고 하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다섯의 자녀를 둔 여성의 자녀관에서는 우리나라 5, 60년대 어머니세대의 여성을 만나고 있는 듯했다. 자녀가 없는 세대들은 대부분 결혼 5년 미만의 세대들이며 특별히 계획을 세워 출산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이 가면 자녀수는 늘어 날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의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모두 통일교를 통하여 배우자를 알게 되었으며, 결혼 전 배우자에 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고, 대부분

친정부모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결심하고 선택한 결혼이라고 했다. 친정부모의 반대이유로는 “외국인이어서” “한국인이어서” “멀리 떨어져서” “후진국이어서” “위험한 나라라서” “잘 모르는 곳에 대한 불안감”등 이었다고 하며, 심지어는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내 딸도 아니다” 등과 같이 절연한 상태로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2~3년 후에 대체로 관계는 회복되었다고 했다. 관계회복의 계기로는 “아이를 낳고” “한국을 방문하여 사는 것을 보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얻어 인식을 달리하여” 등으로 이야기 했다.

결혼생활전반에 관한 질문으로, 먼저 결혼 후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습니다. 라는 물음에 언어의 미숙에서 오는 소통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이야기 했으며, 재래식화장실과 연탄보일러의 사용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대답도 있었다. 홍성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제가 하는 음식을 잘 드시지 않았어요. 일본식이라는 이유였지요. 그래서 한번은 스파게티를 해드렸는데 역시 일본음식이라고 싫어하셨어요.” 라며 무조건 ‘일본인 싫어하기’로 일관하는 시부모와의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였고, 홍성군에서 거주하는 또 다른 한 여성은 “결혼하여 2년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뺑소니교통사고를 당해 보상도 전혀 없이 3년 가까이 대소변을 받아 내야 했었어요. 첫째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와 둘이서 딸기농사를 지으면서 이겨냈어요. 사고 전까지는 시어머니가 일본사람이라고 ‘꼴도 보기 싫다’고 자주 말했지만 사고 이후 관계가 좋아졌어요.” 라며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시련이 있었지만 그것이 시부모와의 갈등을 해소해 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예도 있었다.

지금 현재의 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염려되는 점으로는 경제적 빈곤과 육아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경제적 빈곤의 원인으로는 이주여성본인의 경우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고, 또 남편이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힘들다’ ‘보수가 적다’ 등의 이유로 실업자로 지내고 있는 고의적 무능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의외로 적지 않았다. 홍성군 홍북면에 거주하는 결혼 7년째 되는 한 여성은 “결혼하여 2년간은 남편과 함께 조그마한 트럭을 가지고 시장에서 어묵도 만들어 팔며 행상도 하고 시부모의 농사도 도우면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충남도청이전이 발표되고 주변 시부모의 농토가 많이 올랐어요. 그 이후부터 남편은 일도하지 않고 지금까지 몇 년째 좋은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일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과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지요. 홍성군에만 해도 이와 비슷한 남편이 몇 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라고 했다. 결혼 15년째인 예산군의 한 여성은 “결혼 당시부터 남편은 뚜렷한 직장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의 농사도 많지 않았구요. 그래

도 결혼초기에는 제가 가진 돈으로 카센터를 차려서 운영하면서 농사도 지으며 그럭저럭 생활했지만 시부모가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금 있는 농토도 카센터도 없어지고(남편에 의해), 남편은 축구 조기회나 동창회 같은 모임에는 빠짐없이 나가고 친구들 만나기를 좋아하면서도 수년째 한 푼도 가정에 벌어주는 돈이 없어요. 할 수 없이 딸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가정을 꾸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딸아이마저 약간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정기적으로 천안의 큰 병원으로 치료를 받으러가야 하는 점이 제일 힘들어요” 했다. 또 청양군의 한 여성은 시부모를 모시고 함께 벼농사와 고추농사를 지으며 생활하고 있는 동료의 어려운 예를 들려주었다. 동료의 시부모는 농사를 지어 벌어들인 돈을 일체 자식(며느리 포함)에게 맡기지 않으며, 손자들 용돈도 직접 주며 살림에 필요한 돈을 일일이 그때그때 시어머니로부터 타 쓴다고 했다. 결혼 10년이 넘었는데 쭉 그렇게 해 온데는 남편이 보통사람보다 다소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유도 있지만 아직도 며느리를 못 믿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 광천읍 시장에서 12년째 새우젓 가게 점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한 여성은 “남편과는 나이차이가 16년이나 나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이니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50이 넘고부터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생활은 제가 새우젓가게에서 받는 월 80만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요” 하면서 남편의 주벽과 생활고를 이야기 했다.

한국인(혹은 남편이나 가족)에게 이것만은 꼭 고쳐주었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무조건 빠른 사람이 우선이라고 여기는 ‘운전 문화’와 아무리 바빠도 남편이 집안일 특히 부엌일을 도와주지 않는 ‘부엌 문화’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았다. 청양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일본에 있을 때 저희 아빠는 반찬도 하고 그런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한국에 오니까 애기아빠는 아무리 바빠도 밥상 앞에 앉아서 ‘빨리 해라’ 하면서 부엌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갈등이 많았어요. 하지만 문화가 틀리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어요.” 라면서 실상을 현실감 있게 말해주었다.

부부싸움 혹은 가족과의 트러블이 있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례를 들어달라는 질문에는, 대체로 부부싸움이라고 할 만큼 심각하게 다툰 적은 별로 기억이 없고, 셋째 아이를 임신하고 남편과 집안에서는 낳는 것을 반대하여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 낳아서 잘 기르고 있다는 사례와, 처음 약속과는 달리 남편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리기로 하면서 극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웃이나 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는지 혹은 사회가 본인을 대

하는 느낌은 어떠한지에 대한 물음에는, 가까운 이웃이나 이미 알고 지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마음을 읽을 수 있지만, 어눌한 말투에 갑자기 물건 값이 상승한다든지, 중국인이라고 일방적으로 선언(중국에서 왔구나!)하고 반말로 일관하는 태도라든지, 충분히 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하는 경우와 같은 무시하거나 차별이나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예도 많다고 했다. 청양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동네의 부녀회 모임이나 야유회 등의 행사에 한 번도 사전에 연락받은 적이 없어요. 모임에 나가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일이 있는 이후에 이웃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면 소외받고 있구나하고 느끼지요” 했다.

가장 외로움을 느낄 때는, 명절 때 그리고 몸이 아플 때 대부분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고 답했으며, 그 밖에는 가정사에 대하여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때와 가족이 아닌 친척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을 때라든지 여러 명이 편을 지어 말을 할 때 내편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외로움을 느낀다는 대답도 있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으로, 먼저 지자체 혹은 기타 단체에서 지원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참여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과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상세히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참여하지 않으며, 한국요리교실과 컴퓨터강좌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내용이 연속적이지 못하고 반복되거나 하여 크게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 “별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없어서” “교통이 불편해서” 등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청양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현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우리와 같이 오래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는 별로 없고, 대체로 태국, 베트남, 중국 등지에서 온 초기입국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수준에 맞지 않거나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특히 센터에 가면 그들과 같이 취급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싫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건이 되고 우리에게 맞는 좋은 내용의 프로그램이 있다면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도 하면서 “우리들을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는 말아 주세요” 라는 당부도 빼놓지 않았다.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 전 일본에서는 중소기업체에서 경리사원, 백화점 및 기타상점의 점원 등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많았고, 직업 없이 통일교 전도 사업에 종사하거나 학생신분으로 있었다는 대답도 있었지만, 전문성이 있는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는 남편을 도와 함께 농사일을 하거나 가게(상업)를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독자적으로 일본어강사, 문화관광해설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와 학교나 관공

서에서 청소부로 일하거나 사회복지센터에서 육아도우미로 일하는 일용직이지만 비교적 장기간 안정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인의 가정에서 파출부로 일하거나 역시 지인의 가게에서 연 중 몇 차례 바쁠 때만 가끔씩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취직에 가장 큰 장애요소로는, 보통 가게나 업체에서는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정도 일해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이 있는 주부이다 보니 아이나 시부모도 돌보아야 하기에 그럴 수 없는 점이 주된 장애요소라 하면서, 일본에서와 같이 하루 4시간정도 사정에 맞추어 일할 수 있는 파트타임과 같은 것이 있으면 좋을 텐데 농촌 지역이라 그렇게 일 할 수 있는 곳이 없음을 아쉬워했다. 또한 직종에 대하여는 특별하게 ‘싫다’ ‘좋다’ 가리는 것은 없고 무엇이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다는 반응이었으며, 한 달에 꼭 벌고 싶은 돈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지만, 평균적으로 월 100만 원정도의 고정적 수입이 있다면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자녀를 기르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병원이 멀었다” “유아용품이 비싸다” “유치원비가 비싸다” 등의 대답이 많았지만 “남편이나 주변의 무관심”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는 대답도 있었다.

현재 자녀에 대하여 무엇을 가장 걱정(염려)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질병이나 사고’를 염려한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비 등의 경제적인 문제’ ‘원만한 교우관계’ ‘지나친 컴퓨터사용’ ‘올바른 예절이나 습관’ ‘모어교육과 문화’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나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게도 일본어를 가르칩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가르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조금 가르치다가 그만두었다고 하는 사람도 소수 있었다. 가르치지 않는 이유로는 “남편이나 시부모가 싫어할 것 같아서” 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시간이 없어서”라는 대답도 있었다. 가르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자녀의 장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국어니까 가르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서” “자녀가 알고 싶어 해서” 라고 그 이유를 말했다.

육아과정에 있어서 일본과 다른 문화적 차이점을 느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일본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 공부보다는 서로 잘 어울려 노는 법과 개인위생 등에 초점을 두고 훈육하는데 한국에서는 너무 일찍부터 오직 공부에만 집중하는 것 같다는 의견에 일치를 보였다.

자녀들이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동료 혹은 선생님으로부터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 적극적인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홍성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딸 아이가 학교에서 다른 아이의 실수로 인해 얼굴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어

요. 그런데 선생님이 대수롭지 않게 흔히 있을 있는 일이라며 일관 했어요. 실수한 아이의 부모로부터 사과도 받지 못했고 치료비도 소액이라면서 보험처리도 해 주지 않았어요. 다행히 상처가 심하지 않아 그냥 넘어 갔지만 가난한 다문화가정이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며 자신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시의 선생님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였다.

보육기관이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좀 더 집중해 주었으면 하는 욕아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산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전반적으로 학습능력부진하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떨어지는지 어느 정도 심각한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사실 피부로 느끼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테스트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했으며, 홍성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일본에서는 6세까지의 아이에게는 의료비가 전액 무료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한국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는 하지만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없다”고 했으며, 홍성군에 거주하는 또 다른 한 여성은 “시골에서 읍내 학원을 보내기도 어렵고, 가정까지 찾아와 주는 방문교육도 좋지만 솔직히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학습지교육에 전념하고 있는데 학습지가 너무 비싸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 저런 서비스보다 학습지만이라도 매달 지원해 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요”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결혼생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를 묻는 질문으로 지금 행복합니까? 라는 물음에는 ‘행복하다’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으며, ‘매우행복하다’도 소수 있었지만, ‘불행하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행복한 이유로 “자신이 선택한 길을 최선을 다해 가고 있어서” “자신의 가치가 일본에 있을 때보다 향상된 것 같아서” “누군가 자신을 믿고 있으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서” “한국음식과 한국 사람이 좋아서” 등의 대답이 있었고,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좋아서”라는 대답도 있었다. 하지만 결혼을 후회해 본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대부분이 말하기 매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며 별다른 대답을 주지 않았지만, 홍성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전혀 후회 해 본적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특히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힘들잖아요.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일이고 결혼 전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기도 하고, 또 모두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러니까 호강하려고 결혼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익숙해지고 아이가 생기고 나면, 여기까지 온 이상 그런 생각은 별 의미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길 밖에 없는 거지요”라고 했다.

앞으로 일본인 이주여성성이 늘어 날 것으로 봅니까? 라는 질문에는 ‘그럴 것이다’와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대답으로 나누어 졌다. 그릴 것으로 보는 이

유로는 “앞으로 세계는 점점 가까워져서 국경의 의미가 없어질 것이므로”라고 설명했으며, 그렇지 않을 이유로는 “최근 일본에서는 통일교에 반대하는 NGO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때문에 앞으로 일본에서 통일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질 것으로 예상되어서”라고 했다. 가족이나 친구에게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권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권할 수 있다’고 하는 대답도 있었지만 무응답 내지 부정적 의미의 제스처가 더 많았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경제적으로는 대부분이 빈곤층 내지 저소득층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가정이 많으나,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전반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의미를 부여하며, 긍정적인 태도로 행복한 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복감이나 만족도도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면으로는 많은 수의 여성이 남편의 무능(무직)과 가부장적인 태도(일손이 바빠도 부엌에는 들어오지 않거나, 집안의 대소사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태도 등)에서 오는 갈등, 시부모의 일방적 편견(무조건 일본인 싫어하기)에서 오는 갈등, 사회적 편견과 차별, 이웃으로부터의 소외감 등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러한 문화충돌현상에 적극적인 감정표현과 의사개진 등으로 설득한다거나 대항하지 않고 대부분 혼자서 감정을 삭이는 방법으로 해소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족과 사회가 주는 다양한 불합리성에 적극 맞서거나 부딪히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순응하고 희생하는 편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그러한 현상이 한국의 문화인 것으로 이해하면서 무조건 적응하고 이해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관념<sup>6)</sup>과 어떤 사람과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이 바탕이 되어 있는 듯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본여성결혼이민자가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 빈곤의 원인에는 대부분의 가정이 소득이 높지 않은 농업에 종사하는 이유도 있지만, 남편의 정신적 나태함에서 오는 고의적 무능도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러한 남편에게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강요하거나 남편으로부터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리면서 남편의 역할을 대신하여 경제활동과 집안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의 통일교회 목사는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의 생활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1995년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국제결혼을 질보다 성교에 집착하여 성사시켰지요.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앞으로 교인이 되겠

6) 이러한 관념의 형성에는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일본의 사회조직문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다는 서약서 한 장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 비용도 전적으로 신부(일본) 쪽에서 부담했지요. 그래서 주로 한국여성들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던 가난한 농촌층각을 비롯하여 직업이 없거나 심지어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일본인 여성들과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지요. 많은 수의 남편들이 약속을 어기고 교회에 나오지 않거나, 부인에게 의지하여 일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수지만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도저히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가정도 생겨나곤 하였지요. 그래서 최근에는 교회에서 대상자를 좀 엄격히 하기 시작하였어요. 반드시 직업이 있어야하고, 35세 미만이어야 하며, 결혼비용도 실비를 부담해야하며, 종교적으로도 신앙심이 충만해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홍성군의 경우도 일본인 다문화가정의 절반정도가 남편에게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요. 자신의 능력과 현실을 똑바로 알고 눈높이에 맞추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떠도는 남편들이 많아요. 집을 산다거나 사업을 한다고 하여 친정(일본)으로부터 목돈을 받아서는 결국 다 없애버리고 빈둥빈둥 노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일본부인들은 묵묵히 견디며 잘 해나가고 있지요. 매스컴으로도 감동적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녀들로부터 참 많이 배워야하고 대단한 부인들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다수의 중국, 베트남, 태국 등지의 결혼이민자들과는 결혼동기부터가 확연하게 다르고, 확고한 종교적 신념에서 오는 가치관의 정립으로 한국에서의 결혼생활 전반에 있어서 별 무리 없이 비교적 잘 적응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취급하고 바라보는 시선이 싫었다”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는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결혼동기에서나 결혼생활의 영위 면에서나 기타 국가(중국, 베트남, 태국 등지)로부터의 이주여성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학력과 선진국 출신으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이 출신국가를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음도 알 수 있다.

### 3. 일본여성결혼이민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이상을 바탕으로 하여 일본여성결혼이민자의 특징을 간략히 정리하여 보면, 먼저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본고에서는 모두) 통일교를 매개로 국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따라서 기타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뚜렷이 구분되는 종교적 신념에 바탕을 둔 결혼동기와 목적을 지니고 있다. 둘째 체재기간이 긴 여성이 많아서 이미 한국어에 능통하고 문화에 익숙해져 생활전반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언어미숙이나 문화충돌로 인한 어려움보다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이 크고, 경제적 빈곤의 원인에는 남편의 정신적 나태함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넷째 많은 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가족관계에 있어서 이주여성 본인보다 남편을 비롯한 시부모와 가족들의 의식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이 크다. 다섯째 선진국출신이라는 자긍심이 내면에 존재하여 기타 국가의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같이 취급받는 것을 싫어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에 소극적이다. 여섯째 교육수준이 높다고는 하지만 거기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 일곱째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집하고 드러내지 않으며,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로 생활한다. 종합적으로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정착과정에서의 수많은 갈등과 시련을 묵묵히 견디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고려한 일본여성결혼이민자가정의 지원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먼저 현실적 측면에서는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지원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서는 이주여성본인들에게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남편과 가족들에 대한 소양교육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주여성본인들에게는 학력과 능력을 살펴 각 급 학교나 기관단체에서 일본어강사로 채용하는 방안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청양군에서 실시한 영농교육과 같이 농촌에 살고 있으면서도 농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경험과 기술이 없어서 소득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가정에게 농지를 임대하고 재배법을 가르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에서 근무시간을 4~5시간 정도로 조정하여 가사와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일본인다문화가정이 모두 통일교를 매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일본인 이주여성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구심력이 있어서, 매주 1, 2회 정기적으로 교회에서 만남이 이루어지고, 안부를 물으며 서로의 삶을 체크하며, 새로운 이주여성들이 생기면 선배를 중심으로 한글교육은 물론이며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전반에 관한 멘토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남편의 소양교육을 비롯한 취학 전 아동의 보육지원이나 취학아동의 방과 후 학습지원이 통일교회와의 공조<sup>7)</sup>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매우

7) 통일교에서는 임지교육이라 하여 결혼 후 생활해야하는 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필요한 전반

효과적일 것이다.<sup>8)</sup>

그리고 다문화사회의 실현이라는 차원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모국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 각 지역의 축제에서 일본인으로서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각 지역의 축제에 일본인이라면 출신지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춤출 수 있도록 전통복인 ‘유카타’를 지원하고 일정기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전술한 일본에 사는 한국인며느리의 사례에서와 같이 모든 다문화가정에서 월 1회라도 ‘며느리의 날’을 따로 두어 며느리 나라의 음식을 해 먹으며 며느리의 국가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진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 및 지역민을 대상으로 일본,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각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 다문화 강좌의 개최도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일본여성결혼이민자들은 비교적 많은 수의 자녀를 두고 있다. 심각한 저 출산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이들은 장래 국가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자원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어디에 집중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본인 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의 학교성적에 크게 집착하지는 않지만 한국인 못지않은 교육열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으로의 유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 자녀 중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모국문화체험 및 유학기회를 제공하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는 사교육비부담을 덜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인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구체적 교육지원방안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가)일본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친 적이 있으며, 자녀들 또한 배우기를 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경제와 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서 양국은 앞으로도 밀접한 관계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본을 모국으로 하는 자녀들에게서의 일본어교육은 장래 그들로 하여금 두 나라 사이에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 작용할 것임으로 일본어(이중 언어)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나)어머니나라의 문화체험기회를 조기에 제공하여 자녀들에게 동기부여 함

적 내용(한국어교습을 비롯한 전통문화체험, 요리실습, 전통실습, 한국문화 및 사회제도강좌, 역사교실 등)을 교육한다고 한다. 자세하게는 (김계정 2011:352)참조.

8) 하지만, 그러한 강한 연대가 오히려 동국인 및 같은 종교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어 타종교의 한국인과는 대화의 부재를 초래하는 결과로서 나타날 수도 있다. 종교기관의 지도자들은 한국인들과의 교류가 적은 것은 개인의 성격차라고 하지만, 많은 일본인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한지 10년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인 인적교류를 맺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조현미 2009:541)는 우려도 있다.

이 중요하다.

다)일본인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주변에서 일본사람을 ‘일본 놈’으로 말하는 것에 대하여 상처를 받고 있으며, 어머니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럽게도 생각하는 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고, 또한 일본(문화를 비롯한 전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잘 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일본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고려한 역사의식 등의 교육을 실시하여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이 바람직하다.

라)일본인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의 학교가 ‘예체능교육’ ‘함께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적은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다문화사회는 ‘조화(하모니)’가 키워드인 사회이므로 ‘음악교실(악기연주, 합창 등)’ ‘연극교실’ 등의 교육 강화가 바람직하다.

마)아동기(초등) 자녀와 청소년기(중, 고등)자녀로 교육대상을 이분하여 아동기자녀의 교육지원에는 1)일본어교실 2)음악교실(악기연주, 합창 등) 3)연극교실 4)문화·자연 체험 등 현장학습(연극 및 영화관람, 유적지 견학 등) 등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하고, 청소년기자녀의 교육지원에는 1)일본어교실 2)일본역사문화에 대한 이해 교실을 주요 교육내용으로 함이 바람직하다.

바)일본인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교육기관 ‘대학교’임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교육을 위하여 대학교의 역할(교육장소와 교사)이 강화되어야 한다.

## 4. 나오면서

박노자는 “대한민국은 다민족 국가이지만 다문화사회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회의적으로 보는 근거로 온정주의적이면서 이율배반적인 정부정책과 과시적이며 전시적인 동화 사업들을 지적하였다. 그는 또 “존중”과 “가치공유”를 키워드로 하는 다문화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류(토박이)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박노자 2009).

다문화교육은 문화다원주의 또는 다문화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민족적인 고정관념과 차별, 편견을 지양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상호이해와 존중, 협조와 공존을 이념으로 한다.<sup>9)</sup> 논 미나리가 밭으로 이식되어 밭 미나리와 함께

9) 문화다원주의는 동질화의 강요에 대한 부정적 견해로서 여러 민족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1930년대에서 1950년대에 걸쳐 미국의 사회통합이념으로 환영받게 된다. 한편 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발 미나리들의 이해와 존중 그리고 배려가 절대적이다. 즉, 발 미나리들이 눈 미나리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생육환경을 배려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다문화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 결혼이주여성들은 대부분(조사대상지는 전원)이 통일교를 매개로 한 종교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혼을 통하여 입국하였기에 기타국가의 이주여성 과 뚜렷이 구분되는 결혼동기와 목적을 지니고 있어서 ‘인내와 성실’ ‘순종과 희생’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전반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한국 사회나 가정에 비교적 잘 적응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통일교회의 역할이 컸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인 다문화 가정을 위한 지원에는 타 지역의 결혼이민여성과는 달리 이민여성 본인보다는 성장한 자녀와 남편 및 가족(수용자)에 대한 교육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그 실행에 있어서는 통일교회와의 공조체계가 갖추어 진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多문화’가 의미하듯이, 우리나라에는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양한 국적과 민족(인종)의 여성들이 우리나라 남성들과 결혼하여 살고 있으며, 이들은 출신국가와 민족에 따른 문화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한국사회에의 적응방식도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다문화사회에의 대응의 일환으로 제시되는 각 지자체의 지원정책이, 그러한 다양한 케이스(본고에서는 일본 이외의 이주여성에 대한 특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에 적합한 국가별 맞춤형의 형태로 전환되어야함을 이야기하면서 일본인이주여성의 사례를 그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미를 둔다.

## 【参考文献】

- 김계정(2011) 「신종교의 다문화가정시대의 도래에 따른 대응: 통일교의 재한 일본인 부인가정을 중심으로」 『신종교연구』 제24집 pp. 327-361
- 김이선, 정혜숙, 김영주(2008)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농림부.
- 박남수(2000) 「다문화 사회에 있어 시민적 자질의 육성: 사회과를 통한 다문화교육의 모색」 『사회과교육』 33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pp.101-117
- 박노자(2009) 「대한민국에서 다문화 사회가 가능한가?」 『다문화와 디아스포라』 전주대학교 국어문학회 pp.1-7
- 보건복지부(2006)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대책」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80376&menu=1](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80376&menu=1)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KDI 경제정보센터 [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97618&menu=1](http://epic.kdi.re.kr/epic/epic_view.jsp?num=97618&menu=1)
- 설동훈·김윤태·김현미 등(2005)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 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오성배(2008)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유진이, 홍영균(2007)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시설 환경학회 논문집』 제5권 제3호 통권13호, pp.89-100
- 이덕구(2009) 「일본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충남의 농촌지역(홍성, 예산, 청양)을 대상으로」 『문화관광연구』 11권 2호, pp.23-37
- 이재분(2008)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교육현황과과제: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충북교육연구』 통권 제9호, pp.48-61
- 조현미(2009) 「일본인 국제결혼여성의 혼성적정체성」 『일본어문학』 Vol.45 pp.521-54
- 조혜영, 서덕희, 권순희(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수행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Vol.18 No.2 pp.105-134

## 부록

### 日本人移住女性の生活実態及びお子さんの教育支援のためのアンケート調査

このアンケートは日本人移住女性のお子さんたちに対してより良い教育支援政策を提案するための資料に活用されます。研究目的以外には使わないことを約束いたします。ご協調よろしくお願い申し上げます。

※応答者本人及び配偶者に関する質問です。当たる項目に ○示してください。

1. あなたの年齢はいくつですか。

- ①20~29歳      ②30~39歳      ③40~49歳      ④50歳 以上

2. あなたの学歴は。

- ①高卒以下      ②高卒      ③専門大卒(2年制大学)      ④大卒以上

3. 入国したのはいつですか。

- ①1979年 以前   ②1980年~1989年      ③1990年~1999年      ④2000年 以後

4. あなたの宗教は何ですか。

- ①統一教   ②基督教      ③佛教      ④その他(      )

5. 配偶者の年齢はいくつですか。

- ①20~29歳      ②30~39歳      ③40~49歳      ④50歳 以上

6. 配偶者の学歴は。

- ①高卒以下      ②高卒      ③専門大卒(2年制大学)      ④大卒以上

7. 配偶者の職業は何ですか。

- ①農畜産業   ②自営業(商業)      ③会社員(公務員)      ④無職   ⑤その他(      )

8. 配偶者の1年の平均収入は大体いくらですか。

- ①0~1,000万 未満   ②1,000万~ 2,000万      ③2,000万~3,000万      ④3,000万 以上

9. お子さんの年齢は(韓国の数え方に従ってお子さん全員を書き入れてください)

- ①男の子(   )歳 (   )歳 (   )歳      ②女の子(   )歳 (   )歳 (   )歳

※お子さんに関する質問です。当たる項目に ○示してください。もし複数の回答をしたい場合は番号で手順を決めてやってください。

1. お子さんを育てる過程で一番大変だったのは何でしたか。

- ①家族及び回りの無関心   ②交通問題(病院, 保育機関, 学校などが遠かった)   ③経済的問題(育児用品, 病院費, 教育費などが高かった)   ④特別になかった。⑤その他(      )

2. 現在お子さんに対して一番気になるのは何ですか。

- ①疾病や事故   ②正しい礼節や習慣   ③円満な交友関係(親戚、お隣、友だち同士と

의 円満な人間関係) ④教育費等の経済的な問題 ⑤母語教育と文化をどう教える  
 か. ⑥その他( )

3.お子さんの学校の成績はどの位ですか? ( )中には当たるお子さんの数を示して  
 ください. ①非常に優秀だ.( ) ②優秀だ.( ) ③普通だ.( ) ④良  
 くない方だ.( ) ⑤よく分からない.( )

4.お子さんに日本語を教える. ①教え続けている. ②教えたことがあるがやめ  
 た. ③教えたことがない. ④その他( )

5.お子さんが幼稚園あるいは学校でお母さんが日本人であるという理由で仲間た  
 ちからいじめられたり冷やかされたり或は先生から差別を受けていると思う.  
 ①そうだ. ②そうではない. ③よく分からない. ④何とも言えない.

6.お子さんがお母さんが日本人という事実を誇らしく思う.  
 ①そうだ. ②そうではない. ③よく分からない. ④何とも言えない.

7.お子さんは周辺の韓国人が平気で日本人を卑下して表現することに傷つく方  
 だ.(例えば、日本人を‘日本やつ’という)  
 ①そうだ. ②そうではない. ③よく分からない. ④何とも言えない.

8.お子さんは日本語を学びたがっているし、日本に対して詳しく勉強したがあっ  
 ている. ①そうだ. ②そうではない. ③よく分からない. ④何とも言えない.

9.お子さん(配偶者及び家族を含み)は日本(文化を含めた全般)に対してどの位分  
 かっていると思いますか. ①よく分かっている. ②ある程度分かっているが間  
 違って理解している部分も多い. ③よく分かかってない方だ. ④全然分かかって  
 ない. ⑤その他( )

10. お子さんはご両親の結婚過程をよく理解している.  
 ①そうだ. ②そうではない. ③よく分からない. ④何とも言えない.

11.お子さんを保育園あるいは幼稚園等の保育機関に送ったことがある.  
 ①ある ②ない

12. ‘ない’と回答したら、保育機関に送らない理由は何ですか.  
 ①信頼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 ②教育費が高くて ③適切な通園手段がなくて  
 ④周辺に適切な機関がなくて ⑤行かせる必要性がないと感じて⑥その他( )

13. お子さんたちを保育機関に送りながら大変だったのは何ですか.  
 ①教育費が高かった. ②適切な通園手段がなかった. ③帰宅時間があわなかつ  
 たら. ④いじめられた. ⑤先生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できなかった. ⑥その他

14. お子さんが保育機関に慣れるのに役に立ったことは何だと思えますか.  
 ①先生が親切に特別に気配りしてくれて ②先生と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親密に  
 できて ③先生が日本文化あるいは多文化に対して分かりやすく話してくれて ④  
 周辺の仲間子供たちや学父兄たちの関心と理解があつて ⑤子供がよく適応するよ

うに私が努力した ⑥その他( )

15. お子さんたちを保育機関に送って良かったと考えられる点は何ですか。

- ①韓国語を早く言えるようになって ②仲間たちと一緒に交わることができて  
③保育内容やプログラムが良くて ④働ける時間と勉強する時間が生じて  
⑤私に分らない韓国文化や生活慣習を学ぶことができて ⑥学父兄たちと付き合い  
ることができて ⑦先生が幅広い相談をしてくれて ⑧その他( )

16. お子さんを保育機関に送りながら一番心配される点は何ですか。

- ①食事が口に合うか(アレルギーやアトピーで避けなければならない食べ物がある)  
②準備物が多くて ③親が参加しなければならない行事が多くて ④守らなければ  
ならない規則や指示事項が多くて ⑤機関での教育(礼節)が私が思うことと  
違って ⑥いじめられていないか心配されて ⑦他の学父兄たちとの付き合いがい  
やで ⑧その他( )

17. 現在の育児環境やお子さんに対してどんな感じがしますか。

- ①不安、恐怖感に包まれる時がある。②子供を育てるということに気が重くなる。  
③子供が間違えばすべて私の責任という気がする。④子供には必ずたくさん  
教えたい(高学歴)。⑤最善をつくしていることから来る充実感と満足感を感じる  
ことができる。⑥その他( )

18. 育児過程で一番信頼する情報原はどこ(誰)ですか。

- ①隣りの韓国人友達 ②周辺と同じ移住日本人友達 ③幼稚園、学校などの先生 ④  
配偶者あるいは家族 ⑤相談機関(多文化支援センターなど) ⑥TVあるいはラジオ  
⑦新聞 ⑧育児雑誌あるいは育児教育専門書 ⑨インターネット通信 ⑩その他( )

19. あなたが一番信頼する教育機関(もしお子さんに特別教育の機会を提供したら  
一番信頼して任せられる教育機関)は。①大学 ②小, 中, 高等学校 ③YMCAを含  
めた市民団体 ④多文化支援センターを含めた行政機関 ⑤その他( )

20. 幼稚園、学校などでの教育課程(教育内容)あるいは教育環境(雰囲気)が日本と  
比べて違うところがあったら何ですか。例えば、教科成績を意識しすぎるとか学  
父兄たちが私教育に頼りすぎるなどの比較される点を具体的に記述してくださ  
い。①( )②( )

21. 学校及び保育機関で放課後あるいは休み期間を利用して特別教育プログラム  
を提供したらどんなプログラムがあれば良いと思いますか。(手順を決めて 三つ  
を選んでください) ①ハンゲル教室 ②日本語教室 ③コンピューター教室 ④日  
本歴史文化に対する理解教室 ⑤教科学習教室(国語, 英語, 数学など) ⑥音楽教室  
(楽器演奏, 合唱など)⑦舞踊教室(伝統舞踊, バレーなど) ⑧文化や自然体験などの  
現場学習プログラム(演劇及び映画観覧, 遺跡地見学など) ⑨その他( )

## 要 旨

本稿は、この間の『多文化家庭サポート事業』が結婚移住女性の出身国家による特性や文化及び地域社会の特性をまともに反映することなく一括した方法に進行されて来たという問題意識から始まる。

特に日本人女性結婚移民者の場合は、宗教的な理由を持って韓国の男性と結婚し、入国した場合が多くて、その後の諸問題を教会(統一)に頼って来たと言え、『多文化家庭支援センター』の利用率はそれほど高くなかったのが事実である。

そこで本稿では、忠南の農村(洪城、礼山、青陽)地域に住む日本女性結婚移民者を対象にして、結婚の動機や子育て及び国の多文化政策などを含む移民生活全般に関する意識調査を行い、韓国社会における生活実態を明らかにした上、日本人女性結婚移民者たちが持つ特性などの分析をおこない、その特性に合った支援方案を取り出そうとした。

その結果、本稿での日本人結婚移住女性は全員が宗教的な理由で結婚しており、比較的滞在期間も長く、言葉を始め韓国での生活全般によく慣れている場合が多かった。しかし、経済的な面においては平均以下の貧困に困る家庭が多く、その原因としては配偶者の怠けに因る場合が少なくないことが分かった。

総合的に日本女性結婚移民者たちは、韓国文化を積極的に理解して収容しようとする姿勢を持って、幸せな家庭を作ろうとしていると言える。ここには統一教会の役割もあつたように見られる。従って、日本人多文化家庭における支援政策は、成長した子供に対する教育支援と共に配偶者及びその家族に対する教育支援に焦点を合わせ、統一教会と助け合いながら実行すればもっと効果的であろう。

キーワード：日本人女性結婚移民者、忠南の農村、多文化社会、育児教育支援、配偶者及び家族、国家による特性、統一教会

투 고 : 2011. 11. 30  
1차 심사 : 2011. 12. 17  
2차 심사 : 2012. 1. 7